

“기회는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”

잠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

제공일 : 2011. 12. 8.

제공자 :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정책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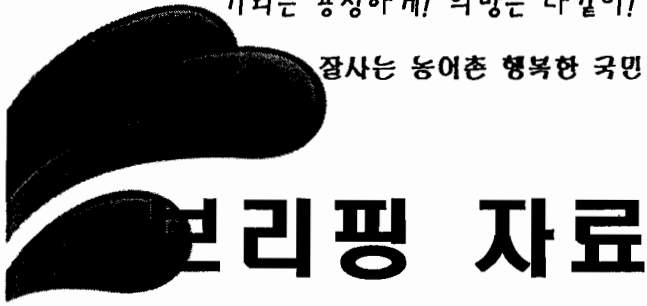
과 장 : 김 정 희

사무관 : 임 태 훈

전 화 : 500-2306

쪽 수 : 13P

별첨자료 : 있음



이 자료는 2011년 12월 8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산물수출 100억불 시대, 10대 품목으로 날개 달아

- 2020년까지 수산물 수출 100억불 달성 -

1. 기본방향

□ 농림수산물식품부(장관 서규용)는 수산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10개 품목(갯벌참굴, 해삼, 전복 등)을 집중 육성하여 2020년까지 전체 수산물 수출 100억불(해외수출 포함)달성을 목표로 하는 「세계 수산시장 변화에 대응한 수산분야 10대 전략품목 육성 계획」을 확정·발표 하였다.

□ 이번 대책은 한·미, 한·EU FTA 체결에 따른 미국, 유럽시장 확대, 중국의 폭발적 수산물 소비 증가 및 대일본 수출 기회 증가 등 대외적 여건 변화가 우리 수산업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,

* 중국 1인당 수산물 소비량(kg/년) : ('00) 11 → ('09) 30 → ('20) 40.8

* 중국인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1kg 증가할 경우 130만톤(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의 40%)의 수요 발생

- 10대 전략품목 육성을 통해 양식산업을 미래 식량산업으로 자리 매김하는 한편, 우리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.

※ 수산양식업은 글로벌 식량위기를 해소할 성장산업이며 세계적 석학들이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산업으로 전망한바 있음

- * 엘빈 토플러는 수산양식 등 해양산업이 정보화시대 4대 주력 산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했고,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에는 인터넷보다 수산양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망하다고 언급. 또한 미래예측 전문가인 미국의 윌리엄 하랄 교수는 2018년에 수산양식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
- * "The Economist"는 농업의 녹색혁명(Green Revolution)에 상응하는 수산 양식혁명(Blue Revolution)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(2003)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자본·기술·인력이 수산업에 들어 올 여건을 조성하고 고품질·안전·위생의 대한민국 수산물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.

- 9대 추진과제로 i) 10대 전략품목 육성 ii) 양식어장 진입 규제 완화 및 친환경 양식 실현 iii) 정예인력 확충 iv) 양식 시설 현대화 및 위험관리체계 강화 v) R&D 시스템 구축, vi) 마케팅조직화 및 유통·가공 인프라 구축, vii) 고효율 배합 사료 공급시스템 구축, viii) 해외양식 진출지원 ix) 수출 홍보 및 시장확대 지원체계를 정비한다.

2. 9대 추진 과제

가. 10대 전략품목 육성

- 10대 품목 선정은 ①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품목(예 - 갯벌참굴 : 여름철에도 생식이 가능한 굴 생산) ②신개념 양식방법이 개발되는 품목(예 - 참치 : 외해양식, 새우 : 빌딩양식), ③세계시장에서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품목(예- 해삼 : 중화권 소비 폭발적 증가 등) 등 세계시장이 확대되고 기술개발 잠재력이 큰 품목을 선정

(1)갯벌참굴	(‘10) 생산 0.28천톤 / 수출 0억불→ (‘20) 125 / 10.2
---------	--

- 갯벌참굴은 일반 굴의 10배 가격(개당 800원)의 고가품목으로 주산지인 프랑스 어장 노후화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
 - * 우리나라는 갯벌에서 여름굴 생산에 성공(‘10년, 280톤)하는 등 첨단 기술 상업화 및 '갯벌을 이용한 양식' 방법 개발완료
- 이에, 양식적지 조사와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지정 등을 거쳐 25백ha 갯벌(전체 갯벌의 1%)을 친환경 양식생산 기지로 조성
 - 이를 위해 갯벌에서 대규모 친환경 양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한편, 마을어장(갯벌 등)에 대한 임대차를 어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에도 확대할 예정이다.
 - *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「갯벌 양식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
- 어장 확대 대비, 우량모패의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종패 공급 능력을 현재 1개소에서 18개소로 확충.

(2)해 삼	(‘10) 생산 4천톤 / 수출 0.12억불 → (‘20) 46 / 30
--------	--

- 중국 해삼 잠재 수요가 50~60만톤(10조원)으로 추정되는 등 엄청난 중국 시장이 있고, 잘 말린 건해삼은 100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품목임.
- 우리나라는 1g내외 종묘생산 기술 확보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건해삼 가공기술 축적 중에 있음
 - * 해삼 33kg 건조시 건해삼 1kg생산(가격 200~300만원, 부가가치 100배 상승)
- 향후 해삼 전문생산 거점지구 조성(75백ha)하는 한편, 품종별로 세분화된 면허를 여건에 따라 여러 품종(어류, 해조류, 패류)을 복합양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- 초기 생존률이 높은 3~5g 크기의 해삼 종묘 방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, 유전자 관리, 초기 배합사료 개발, 종묘방류 매뉴얼(방류수심, 크기, 조건 등) 제작 등 기초과학연구 실시
- 건조기술 확보를 위해 중국 기술자 초청 및 기술전수 등도 추진

(3)전 복	(‘10) 생산 6.2천톤 / 수출 0.37억불 → (‘20) 35 / 25
--------	--

- 전복도 중화권에서 선호하는 고급수산물 중의 하나이며, 주로 200g 이상의 대형(大形) 전복 일수록 부가가치 상승
 - * 홍콩은 전복 수입액 세계 1위(연간 2억불) 국가(가공품 70백만불 수준)
 - * 우리나라 전복 생산량 : (‘00년) 20톤 (19억원) → (‘10) 6,226 (2,282)
 - * 해외는 大形種 ‘씨볼트전복’ 주로 양식, 우리나라는 小形種 ‘참전복’ 양식

- 해외의 수요 등에 맞춰 200g이상의 고부가가치 전복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 - 양식장 외해 이전 등 어장환경변화에 따라 어장 재배치
 - * 어장개발(시설) : ('10) 256ha(생산 6천톤) → ('20) 540(생산 14천톤)
 - '참전복' 육종을 통해 성장 30%, 생존률 20%를 향상시키는 한편, '씨볼트전복' 국내 도입 방안 연구 추진
- 산지 전복 수집·축양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집하장 시설 및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건립지원 일본의 전복 건조기술자를 초청하여 맞춤형 가공기술을 습득·개발

(4)광어(넙치)	('10) 생산 5.6천톤 / 수출 0.7억불 → ('20, 국내외) 88 / 8.1
-----------	---

- 대구, 헐리벳(대서양넙치) 등 흰살생선 어획 둔화 추세로 향후, 미국, EU 등에 생선 스테이크용 수요 증대 예상
 - * 대구과 어류생산량 : ('80) 9.4백만톤 → ('90) 9.7 → ('00) 6.9 → ('09) 5.5
- 이에, 제주·전남 일원 양식장을 전국으로 확대 조성(60ha), 아프리카, 남미 등에 150ha의 해외 양식장 조성 지원
- 기존 넙치보다 30~40% 이상 성장이 빠른 육종 넙치 품종 개발하는 한편, 내병성 품종을 개발·보급('15년)을 통해 독보적 세계경쟁력을 구축
-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활어 수출 인프라(활어컨테이너, 무수동면 기술 확립 등)를 구축 및 스테이크용 넙치(3kg이상)양식과 제품화 추진

(5)참 치	(‘10) 생산 320천톤 / 수출 3.7억불 → (‘20, 국내외) 325 / 13.3
--------	---

- 원양어업으로 생산하는 농수산물 최대 수출품목 중의 하나
이나, 참치 자원감소와 국제규제 강화로 생산량 증대 한계
 - * 농수산물 수출(순위): 담배 542억불, 참치 374, 커피 221
- 이에 참치 양식 추진을 통해 고부가가치 참치 생산 추진
 - 양식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‘20년까지 외해양식장 24개소 조성 (480ha)하고, 종묘생산 기술 개발(‘14) 및 배합사료 개발 등을 집중 연구 실시.
- 남태평양 등 참치자원 부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(ODA)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은 참치조업권 확보 및 참치캔 공장설립 등을 통해 미국, EU 등 현지로 직수출 기반 마련

(6)해조류(김,미역)	(‘10) 생산 63천톤 / 수출 1.24억불 → (‘20) 81 / 7.4
--------------	--

- 최근 국내산 김·미역 수출폭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, 향후에도 지속 확대 전망
 - * 김/미역 총 수출금액 : (‘11.5) 82,799천불 → (‘11.9) 152,001 (84% 증가)
 - * 대일본 김/미역 수출금액 : (‘11.5) 36,638천불 → (‘11.9) 66,362 (81% 증가)
- 양식어장 확대를 통한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남서해 해조류 양식장을 확대하고, 동해안에 적합한 양식 시설 개발하는 한편, 김 냉동망 확대 등을 통한 다모작 양식 방법 개발.
- ‘슈퍼 김’ 등 일본품종 대체품 개발·보급 확대, 해조류를 이용한 산업재(연료, 펄프, 비료 등)와 기능성 물질 추출 활용기술 개발 강화 및 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 지원

(7)새 우

(‘10) 생산 27천톤 / 수출 0억불 → (‘20, 국내외) 46 / 5

- 세계 제1위의 수산물 교역 품목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거래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* 주 수입국 : 미국(비중 28.6%), 일본(17.3), 스페인(10.0)
 - * 주 수출국 : 태국(23.9), 중국(13.8), 인도네시아(11.3)
-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에 해외 양식기지를 선점하여 현지에서 제3국으로의 수출을 확대(1,500ha, 45천톤 생산·수출)할 계획
- 국내 고밀도 유기 양식기법(50배 생산성)을 활용한 순환여과 양식(빌딩 양식 등)을 추진, 無항생제 새우 생산시스템 개발 및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

(8)뱀장어

(‘10년) 생산 8천톤 / 수출 0.016억불 → (‘20년) 11 / 0.1

- 전통적인 시장인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등 신흥시장 확대로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* 중국 및 일본 시장(소비량/금액, '07) : (중국) 35천톤/35백억원 (일본) 157/157
- 뱀장어 종묘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 석권
 - 친어확보와 초기 먹이사료 개발 등으로 안정적인 실뱀장어 생산 체계 구축(‘20)하는 등 완전양식을 위한 R&D 확대
 - * (‘15년) 인공종묘생산 원천기술 확보·보급 → (‘20년) 산업화 완료
-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및 유기양식 인증 등 친환경 양식 지원 및 중화권 시장 등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가공기술 개발 추진

(9) 능성어	(‘10) 생산 0.09천톤 / 수출 0억불 → (‘20, 국내외) 12 / 27
---------	---

- 능성어는 중화권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최근 중국이 연간 3.1조원 규모의 소비국으로 급부상
- ‘13년까지 동결 정자(精子)를 활용한 종묘생산 기술 개발 및 국내에 종묘생산단지 조성(‘14년). 종묘, 정자, 생산기술 등을 수출하고, 2018년까지 동남아권에 대량생산 기반 구축

(10) 관상어	(‘10) 생산 0.1천톤 / 수출 0.0044억불 → (‘20) 1 / 1
----------	--

- 관상어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23조원(FAO, 생물 30%, 용품 70%)으로 식용어류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
 - 우리나라는 이미 크라운피쉬(Crownfish), 해마 등 고급 관상어 양식 기술 개발 등 관상어 생산 원천기술을 확보.
 - * 넙치 9,000~13,000원/kg vs. 파랑돔류 1,000,000원/kg
- R&D·생산·유통기능이 복합된 관상어 거점생산단지 조성, 2020년까지 어류, 산호 및 토속어 등 생산 원천기술 확보 및 용품(인공 해수염-소금, 먹이, 자재 등) 국산화 추진
- 해수관상어 생산을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 확충, 수출국 검역기준 통과를 위한 질병관리 및 검역시스템을 구축

나. 양식어장 진입규제 완화 및 친환경 양식 실현

- 어장의 환경친화적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, 어장진입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새로운 인력과 자본 참여를 유도한다.
- 우리나라 연안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어장에 대한 임대차를 어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까지 확대 허용하는 한편,
- 신규어장(외해양식 등)에 기술과 자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제한 규정(대기업 진입제한, 60ha 이상 금지)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기술과 자본이 양식산업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.
- 아울러 품종별 적지조사 실시하고 어장별로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여 총허용양식량(TARQ : Total Allowable Rearing Quota) 정하여 양식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양식을 유도한다.

다. 미래 수산업을 견인할 정예 인력 확충

- 최정예 수산인력(경영체 및 기술인력) 양성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 수산업의 글로벌화를 견인할 계획이다.
- 경영체 육성을 위해 인턴제, 창업연수 지원 및 어촌정착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확대 등 다양한 신규유입 촉진 및 기존 경영체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·보완한다.
-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등급(기사, 기술사 등)별 채용 권고 등을 통해 전문기술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.

- 또한 국제어업교육원 설립을 통해 외국인력 교육·배치·관리 및 국내 산업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.

라. 양식시설 현대화 및 위험관리시스템 강화

- 양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(금리인하)하고,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, 양식보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- 現 양식시설자금(해면 내수면등 세분화)을 '양식시설현대화자금'으로 통합, 지원규모 확대하고
 - * 17년까지 1,250개소, 5,150억원 투자지원
- 수산분야 「농식품모태펀드」 ('20년까지 5,000억원 조성목표)를 활용하여 10대 전략품목 생산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며
- 양식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.
 - * 보험대상 품목 : ('10) 2개 → ('11) 5개 → ('13) 10개

마. 고부가가치 기술 혁신을 위한 R&D 시스템 구축

- 10대 품목 R&D 로드맵을 마련하여 동 로드맵 아래 R&D 예산을 정책방향에 맞게 기획·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.
- 또한, 지자체, 지역대학, 민간연구소, 기업·단체가(어업인) 공동 참여하는 『품목별·권역별 R&D 클러스터』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 개발·보급을 실시할 계획이다.
 - * 예) (전남) 해조류, 전복 (제주) 참치, 관상어, (충남) 갯벌참굴, 해삼 등

바. 마케팅 조직화 및 안전·위생 인프라 구축

- 산지거점유통센터(FPC)사업과 연계, FPC를 기반으로 일선수협 또는 품목별생산자연합회 등이 상품기획, 원물 수집 및 전처리·가공 판매하는 전문화된 마케팅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.

* FPC : ('12년) 2개소 → ('15년) 6개소 → ('20년) 10개소

- 어장에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·공급되도록 지정해역 관리 및 수출용 패류 지정해역(현재 통영, 여수 등 7개소) 확대하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 및 이력추적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바다에서 식탁까지 안전·위생 유통체계 구축한다.

* 이력제 : ('11) 넙치, 전복 등 16개 품목 → ('15) 21개 품목

- 아울러 10대 품목 육성과 연계, R&D·창업보육기능·가공공장을 집적화한 거점산지가공단지를 확대 조성하는 등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한다..

* 거점산지가공단지 : ('11) 9개소 → ('20) 18개소

사. 고품질, 고효율의 배합사료 공급시스템 구축

- 고품질의 배합사료 공급을 위해 어분(양어용 배합사료 주성분)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, 유전육종 연구와 병행한 고효율의 배합사료 개발을 추진한다.

- 해외(남미, 인도 등) 어분공장 확보를 위한 해외 어분생산 합작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

<어분 가격 및 해외 동향>

- 어분가격은 '00년 이후 300% 이상 상승, 향후 자원량 감소 및 중국 등의 양식 생산량 증대로 어분부족(가격 강보합) 전망('11. OECD, FAO)

○ 또한, 사료계수 개선(넙치 1.0 목표 - 현재 1.5~2.0)을 위해 육종 연구와 병행한 사료를 개발할 계획이다.

* 사료 계수 : 1kg 증육에 필요한 사료량, 예) 먹이 2kg 공급시 1kg 증육될 경우 사료 계수 2

* 예) 노르웨이 육종 연어 사료계수 1.2 (자연산 연어 사료계수 10)

아. 생산·가공·판매 계열화형 해외양식 진출 지원

□ 해외 진출 지원(자금 및 정보 제공 등)을 통해 양식 적지를 선점(평균 50년 임대 또는 매입)하고 가공, 판매 등을 수직계열화할 계획이다.

○ 해외 양식적지 확보 등을 위해 해외 양식사업을 지원하는 한편, 계열화된 해외양식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양식·가공·유통 업자 등이 별도의 회사(관련회사)를 설립하는 경우 지원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실시한다.

○ 또한, 지역별 진출여건, 투자유망품목·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어 예정이다.

자. 품목별 수출홍보 강화 및 시장 확대 지원

□ 각종 박람회 등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 판촉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, 중국 등 신시장 공략 수출업체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.

□ 또한, 「국제수산물 가공 수출단지」(13년 완공) 및 『활어·패류 항공수출물류센터』 등을 활용하여 수산물의 물류 및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,

- 활어 컨테이너 지원 등을 통해 활넙치 등 미국 및 EU 진출을 확대하고, 「수출보험공사」에서 운영중인 '농수산물수출보험', '환변동 보험' 등에 대한 수산물에 특화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.

* 항공수송(12,000원/kg) VS. 선박 컨테이너 수송(4,000원/kg)

3. 투융자 계획 및 기대효과

- 2020년까지 전략품목 생산에 1.7조원 투융자하여 2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, 수출 100억불(해외 현지 수출 20억불 포함) 어가소득은 7,049만원(10년 3,570만원)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.

* 양식 시설현대화 7,260억원, 가공·유통 인프라 4,394, R&D·교육 2,669 등

< 수산물 생산 및 수출 전망 >

구분		2010년	2020년
수출	합계	18억불	100억불
	전략품목	7억불	80억불(해외 → 제3국 수출 19억불)
	일반품목	11억불	20억불
어가소득		3,570만원	7,049만원

〈참고〉

수산물 수출 실적

□ 연도별 농림수산물 수출현황

(단위 : 천톤, 백만불, %)

구 분	2005년		2006년		2007년		2008년		2009년		2010년		증감률 (10/09)	
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
합계	1,894	3,415	1,802	3,395	2,051	3,759	2,211	4,496	2,634	4,809	3,104	5,880	17.8	22.3
○ 농식품	1,481	2,221	1,434	2,304	1,514	2,532	1,626	3,048	1,982	3,298	2,311	4,082	16.6	23.8
- 신선	221	608	184	526	199	597	253	675	309	739	329	874	6.2	18.2
- 가공	1,260	1,613	1,250	1,778	1,315	1,935	1,373	2,373	1,673	2,559	1,982	3,208	18.5	25.4
○ 수산물	413	1,194	368	1,091	537	1,227	585	1,448	652	1,511	793	1,798	21.6	19.0

□ 수산물 주요품목 수출실적

(단위 : 천톤, 백만불, %)

구 분	2006년		2007년		2008년		2009년		2010년		증감률 (10/09)	
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
- 참치	101	240	114	293	114	293	178	314	334	374	87.3	19.1
- 기타어류	32	106	43	143	50	221	65	266	64	298	-1.8	12.1
- 오징어	37	47	156	124	151	127	101	108	60	115	-40.4	6.2
- 김	7	62	7	60	8	75	9	82	10	105	2.9	29.1
- 넙치	4	52	3	44	4	43	5	52	6	71	10.5	36.4
- 굴	11	56	8	40	9	46	7	42	10	66	28.4	56.4
- 삼치	5	16	12	27	17	45	14	45	15	55	5.2	20.5
- 게살	5	36	4	32	5	43	5	42	5	43	7.9	2.5

□ 수산물 국가별 수출실적

(단위 : 천톤, 백만불, %)

구 분	2008년		2009년		2010년		증감률 (10/09)	
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
합 계	585.3	1,448.3	652.2	1,511.2	793.0	1,798.2	21.6	19.0
일 본	109.4	686.0	139.5	734.1	314.2	859.5	125.1	17.1
중 국	160.4	190.3	91.9	145.7	106.7	231.2	16.1	58.7
ASEAN	134.9	180.3	201.1	195.7	161.7	198.2	-19.6	1.3
미 국	25.7	113.8	28.2	128.9	27.4	142.2	-2.5	10.3
E U	32.9	95.5	32.9	97.0	48.6	128.4	47.4	32.3
뉴질랜드	31.9	60.6	40.0	70.5	36.6	71.9	-8.5	2.1
홍 콩	1.1	9.5	1.3	13.0	1.6	28.0	18.2	115.8
기 타	89.0	112.3	117.3	126.3	96.3	138.8	-17.9	9.9

□ 2010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실적

○ 부류별

(단위 : 천톤, 백만불, %)

구 분	'08년	2009년		2010년		증감율	
		물 량	금 액	물 량	금 액	물 량	금 액
전 체	4,496.5	2,634.3	4,809.3	3,104.0	5,880.0	17.8	22.3
○ 농식품	3,048.2	1,982.1	3,298.1	2,311.0	4,081.8	16.6	23.8
<신선>	675.0	309.2	739.3	328.6	873.9	6.2	18.2
<가공>	2,373.2	1,672.9	2,558.8	1,982.4	3,207.9	18.5	25.4
○ 수산물식품	1,448.3	652.2	1,511.2	793.0	1,798.2	21.6	19.0
- 어 류	864.7	407.6	929.3	558.0	1,096.9	36.9	18.0
· 참치	293.2	178.3	314.4	333.9	374.4	87.3	19.1
· 넙치	43.4	5.1	51.8	5.6	70.7	10.5	36.4
· 삼치	45.5	14.4	45.4	15.2	54.6	5.2	20.5
· 봉장어	44.2	4.2	39.4	4.4	42.1	5.7	6.9
- 연체동물	280.2	133.7	284.6	94.6	332.1	△29.3	16.7
· 오징어	126.5	101.3	108.1	60.4	114.8	△40.4	6.2
· 굴	46.3	7.4	42.2	9.5	66.1	28.4	56.4
· 바지락	19.2	13.7	34.8	15.3	43.0	11.6	23.6
· 전복	21.0	1.0	33.8	1.0	36.8	0.5	9.1
- 해조류	145.4	21.8	139.4	27.8	171.9	27.3	23.3
· 김	75.3	9.3	81.5	9.6	105.2	2.9	29.1
· 톳	36.4	2.3	28.9	2.7	29.6	17.7	2.5
· 미역	20.6	8.0	16.8	12.0	19.0	49.4	13.3
· 다시마	4.7	0.9	3.5	1.5	6.0	59.3	71.4
- 갑각류	76.3	16.0	71.0	14.2	77.2	△11.3	8.8
· 게살	43.5	4.6	42.0	5.0	43.1	7.9	2.5
· 새우	11.4	9.6	12.1	7.1	10.1	-26.2	-16.2
- 기 타	81.7	73.1	86.9	98.4	120.1	34.7	38.0